

# 공기업 중심의 사업운영과 해외경쟁력 확보가 핵심

글 ·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장, 환경경제학 박사

지난 7월, 정부는 물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기업형 체제로 구조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산업육성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물산업육성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떠오르는 황금산업인 물산업을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여 2015년까지 2배 규모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10위권 물전문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에 기업운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물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효율성 도입이나, 공공성 약화나

우리나라의 물산업의 발전은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실시하고 아울러 물산업의 참여주체들이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의 장애요인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물산업육성추진계획은 매우 적시에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생각한다. 내용 또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잘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한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물산업육성방안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에 집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물 분야에도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취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선택적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위탁을 '물의 사유화'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반대의 기저에는 요즈음 최고의 직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무원 신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물산업육성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수도사업 민간기업화의 개연성은 정책의 순수성에 대한 논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물산업육성정책이 '사유화'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가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 공기업 형태 물기업의 주목할 만한 성장세

물산업육성방안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물의 공

사실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물분야에도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취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선택적 정책일 수밖에 없다.



공성과 함께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감안한 최적의 사업 형태는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공기업 중심의 사업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왜냐하면 물산업을 소수 민간기업들이 주도하게 될 경우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음이 프랑스와 영국의 최근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0년 이후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소어(Saur) 등 3대 민간물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계 사모펀드인 PAI는 2005년 인수한 소어를 2007년 프랑스 국영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원금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

영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민영화된 물기업들의 경영권이 속속 금융자본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 물기업들은 연구개발, 시설투자, 해외진

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 수익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영국 물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의회 상원은 규제 걱정 여부 조사 중이다.

이처럼 민간물기업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공기업 형태의 물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모로코 등의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브라질은 세계 5위 물기업으로 성장한 상파울루주 공사인 사베습(SABESP)에 이어 16위 코파사(Copasa), 20위 사네파(Sanepar)와 같은 물분야 공기업을 배출했다. 이들 공기업은 2007년 1월 상하수도법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독일에서는 알베에(RWE)가 세계 3위 물기업에 오르는 등 에너지기업들이 물산업에 진출하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물의 공공성이나 사유화, 구조개편 등의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현재는 베를린워터(Berlinwasser), 함부르크워터(Hamburgwasser), 겔센워터(Gelsenwasser) 등 공기업들의 성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해외 경쟁력 갖춘 종합적인 수도사업자 육성해야

물산업육성방안이 상수도 분야의 사업구조개편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 까닭에 다루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물전문기업이 상하수도의 통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물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계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전문기업의 상하수도 통합 운영 관리가 시급하다.

그 이유는 **첫째**, 건전한 물순환 이용체계의 측면에서 하수도와 상수도가 같은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건전한 물순환의 촉진을 위한 하수의 재이용은 재이용수의 수요처 확보와 재이용수의 공급체계 구축 등 상수도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의 분절된 사업구조는 결과적으로 건전한 물순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해외 물전문기업과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해외 우수 물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주력기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우수 물기업들은 상하수도 분야뿐만 아니라 상수원

관리 분야, 물 이외의 연관 장치산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물기업들이 물순환의 전 과정(Full Water Cycle)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돗물 공급이나 하수처리장 운영 등 특정분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 개발과 관리, 물의 재이용, 주민에 대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및 요금징수에 이르기까지 물산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고객층과 유사한 사업특성 등에서 오는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효율적인 수도사업을 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 측면에서 볼 때 수도사업의 효율화는 체계적인 상수원의 운영관리, 처리 및 공급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 상류지역의 하수가 하류지역의 상수원수로 이용되고 있어 상수원수의 체계적인 관리 여부에 따라 수돗물의 질적 만족도를 포함한 수도사업의 효율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광역적인 개념에서 상하수도의 일체성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물산업 분야의 수출액은 연간 약 6천억원(2004년 기준)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담수화 플랜트 및 수로 건설 등 건설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사업의 영속성이 없

다. 더구나 물산업의 핵심인 물공급 및 시설의 운영관리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국가의 대외원조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시 나타나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물기업이 국제적으로 전문화된 수도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물전문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조차도 도매기능인 광역상수도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상하수도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합적인 수도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물산업과 관련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기회가 발생하고 있으나, 세계 물시장은 주로 상하수도 운영관리, 건설, 설계, 설비 등 물 관련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계약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순한 용수도매사업자나 단순 시공·건설업체들은 소비자 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미흡한 탓에 해외시장 참여에 제약이 크다.

따라서 효과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물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해 국제적으로 전문화된 종합적인 수도사업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

기업과 국내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은 신인도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서비스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설계, 시공, 설비 등 연관산업에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에 따른 새로운 국부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노력 필요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물의 공공성이나 사유화, 구조개편 등의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전략산업인 만큼 외부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의 구조개편과 더불어 현재의 물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물 분야 공기업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자기혁신 노력과 함께 연관 민간기업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물산업 육성의 열매를 연관산업과 함께 공유하려는 자세와 실천적인 모습을 갖춰야 한다. ☺

